

세월호 바로세우기 예행연습 '이상 무'

목포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마무리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9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유가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만급 해상크레인(HD1000)으로 세월호 선체를 40도까지 들어올리는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선체 조사위는 예행연습을 통해 크레인과 세월호에 연결된 쇠줄의 이상유무와 무게중심 등을 점검 점검했다.

또 작업 과정에서 세월호와 연결된 크레인의 쇠줄이 당겨지면서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체와 접촉 여부 등을 살펴봤다.

이 날 작업은 오전 6시18분 크레인 쇠줄 점검으로 시작했다. 이후 5층 브릿지 오른쪽 등 쇠줄과 선체가

목포신항서 4년만에 좌현 드러내

오늘 오전 6단계로 직립작업 진행

맞닿은 4차례의 간섭현상이 발생해 절단작업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본격화된 세월호 선체 작업은 10시45분 처음으로 0.7도가 들어올려졌다.

이후 11시 10도까지 올라간 선체는 30분에 당초 계획했던 40도까지 세워지면서 침몰 4년여만에 좌현을 드러냈다.

이 날 실시된 예행연습은 40도까지 들어올려진 선체를 다시 내려놓으면서 시작 5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세월호 선체 바로세우기 본작업은 10일 오전 9시부터 실시된다.

세월호 직립을 위해 선체바닥과 왼쪽에 설치한 'L'자 모양의 철재 받침 66개가 1만급 해상크레인과 쇠줄로 연결됐다.

직립은 35도, 40도, 50도, 55도, 90도 등 총 6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4시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월호를 바로세우는 데는 부식돼 약해진 선체와 바다 위에 떠있는 크레인의 흔들림을 줄 수 있는 바람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당 8m가 넘는 바람과 2m 넘는 파도가 발생할 경우 직립작업은 불가능하지만, 10일 목포지역의 날씨

는 작업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직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세월호 주변에 설치된 철재 받침과 안전시설물 해체 작업이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타기실과 엔진룸, 스테빌라이저 등에 진입해 결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안 수색하지 못한 기관실 등에서 미수습자 수색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선체와 쇠줄이 걸리는 문제로 차질이 있었지만 그 이후 공정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됐다"면서 "내일 본 직립 과정은 예행연습에서 드러난 상황 등을 보완해 문제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해남서 승용차·트럭 충돌 직후 화재 4명 부상

9일 낮 12시께 해남군 삼산면 한 저수지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김모(56)씨가 몰던 승용차와 마주오던 김모(49)씨의 2.5t 화물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났으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씨와 동승자는 화재 직후 대피했지만, 충돌 사고에 따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김씨 등 2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가석방 중 또 금품 훔친 20대 구속

충북 청주형무소감찰서는 9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중순 청주의 한 상가빌라 2층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2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청주지역 빌라와 원룸 등을 돌며 총 1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 지난해 10월 가석방 된 A씨는 누락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금품은 모두 유희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서 40대 남성 열차에 치여 숨져

대구 한 열차 선로에서 4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9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9분께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상행선 열차 선로에서 A(43)씨가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7432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해당 선로 열차 운행이 시간가량 통제됐다. 사고 직후 인근 역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직전 열차 선로 오른쪽을徘徊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기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A씨의 신원이 확인됐으므로 유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성 추행하고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거리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거리에서 일명식이 없는 A(47·여)씨를 끌어안고 A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은 A씨를 발견해 범포 사실을 듣고 주변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한 식당 불 200여 명 긴급대피

인천 계양구의 한 고기집 식당에서 전기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에 있던 200여 명이 긴급대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오후 6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장제로의 한 건물 2층 고기집 식당에서 불이 나 손님 19명과 이 건물 3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20명, 신생아 21명과 4층 요양원과 5층 사우나 손님 50여 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원에 있던 11명이 연기 등을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고기집 식당 내 특정 테이블 아래쪽으로 향하는 환기통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스

명절 인사장 대량 발송한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전남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강진 군수선거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의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9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9204명(세대수 대비 50.1%)에게 설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했고 지난해 9월께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8297명(세대수 대비 45.1%)에게 추석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공모, 900만원 상당의 인사장 제작·발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맑은 하늘 아래 편문점 북미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전세계 관심이 높아진 9일 오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한 편문점에서 JSA 경비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세월호 직립연습 지켜본 가족들 "안전하게 세워지길"

"4년이 지나서야 세월호가 바로 서네요. 안전하게 직립돼 미수습자 5명을 찾고 침몰 원인 조사가 이어져야죠."

9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선체조사위와 현대상호중공업이 진행한 '선체 직립 예행연습' 과정을 지켜봤다.

작업 3시간 여만인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부두 안벽의 해상크레인 와이어 128개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왼쪽으로 누운 세월호를 서서히 들어올렸다.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에타는 눈빛으로 선체를 바라보던 가족들은 "많이 들려졌다"며 웅성였다.

선체가 15도 이상 들어올려지자 선체 안에 있던 잔해물과 빛물이 밖으로 쏟아졌고, 곳곳에서 탄식이 들렸다.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선체 좌현의 훼손 상태를 보던 일부 가족은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순간이 떠올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살려고 발버둥쳤을텐데, 저런 곳에 우리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며 오열했다.

오전 11시25분께 선체가 35도 각도로 들어올려지자 좌현이 더욱 선명히 보였다.

물때·기름때·부유물 등이 낀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얼룩과 함께 곳곳이 뒤뜰리고 깨져 있었다.

선체가 높이 들릴수록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아졌다.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격려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순간부터 숨진 채 발견된 피붙이를 마주했을 때,

지지부진했던 인양·육상 거치 과정까지 1486일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립연습 과정을 생중계하는 가족, 안전펜스 앞에서 조조한 발걸음을 옮기는 가족, 애끓는 심정을 여누르며 공정을 담담하게 지켜보던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

목표로 했던 40도 각도로 선체가 세워지자 직립 예행연습이 끝났고, 가족들은 10일 직립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랐다.

또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원인 다각도 조사'로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세월호 바로 세우기 본작업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남규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묘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에 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에 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구묘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